

저소득 모자가족 아동방임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박영희·신혜섭**

저소득 모자가족 아동방임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서울 K구의 B, D동에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존감, 가족 관계 부분에서의 변화를 사전 사후 검사하고, 일상생활 관리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만족도 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가족관계와 일상생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으나, 자존감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한 비교에서 결과에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개별 아동들에 대한 진적 분석도 이루어졌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저소득 모자가족 아동방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방향이 제시되었다.

* 본 프로그램 전과정을 도와주신 강서구 등촌4복지관과 방화6복지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박영희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신혜섭 (동덕여자대학교 조교수).

1. 서론

1) 문제제기

저소득 모자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모자가족이 되면서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가 60%에 이르고(한국여성개발원, 1998), 이러한 소득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이들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가져온다. 저소득 여성은 자신과 자녀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 전선에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 때 이들 가족의 자녀는 급작스런 가정환경의 변화를 겪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과중한 가사일과 직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방임이나 학대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김기환, 1995). 이들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일의 성격상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집밖에 있어야 하거나 밤 시간 동안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정서적 지지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결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동들을 돌보아줄 대리체제도 전무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들 아동에 대한 관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저소득 모자가족이 밀집된 임대아파트 지역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집단화되어 성인의 보살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밖을 나돌거나, 부모가 없는 집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저소득 모자가족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이 방임되는 것에 대한 방과 후의 적절한 지도감독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도감독 체계의 한 방안으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저소득 모자가족 아동에 대한 방임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보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자가족에 대한 연구는 특별히 저소득 모자가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로 일반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저소득 모자가족 아동의 실제 생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선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 모자가족 아동들이 부모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어 적절한 발달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임개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저소득 모자가족 자녀의 방임 현상

저소득 모자가족의 경우 '가족구조적 결손'과 '빈곤'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금까지는 이들 가족 자녀의 경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역할 모델의 상실이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아버지의 상실은 정신적인 충격과 일상생활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자아개념, 인지능력, 도덕성 발달과 정서적인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업성적 하락, 동료와의 대인관계 문제, 학교생활의 부적응, 가정생활문제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자가족의 적응을 단순히 부부재라는 사실로 인한 '역할 모델의 상실'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던 과거의 관점보다는 '위기적 사건과 대처 방안 간의 상호작용'(김영희 외, 1995)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모자가족의 자녀들이 적응하는 데에는 부부재시 자녀의 연령, 성별, 기질, 모와의 관계, 자녀의 대처자원, 모의 경제적·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상태, 모의 자아통제감,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자녀의 대처방안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Kirson et al, 1989; Kalter et al, 1989; Amato & Keith, 1991; 신화용, 조병화, 1996)하기 때문이다. 이때 특히 모의 양육태도와 모-자녀 관계가 결정적이다(Booth & Amato, 1993; 정현숙, 1992; 정현숙, 1995; 김영희, 1995). 이와 같이 모자가족의 적응에 있어서 '모와 자녀와의 관계'나 '모의 양육 태도'가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만 저소득 모자가족은 이러한 요인들의 결핍을 심각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반 가족에 비해 방임 현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Dore, 1993: 546)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빈약하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하여 지지적이지 못할 때 아동에 대한 지도감독자로서의 어머니가 자녀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 욕구 충족의 과제는 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방임이란 간단히 말하면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DePanfilis, 2000: 122)를 의미한다. 방임되어 온 아동들은 많은 경우 여러 가지 발달상의 어려움, 즉 어머니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고, 낮은 자존감, 자기주장을 하기 어렵고 좌절과 학교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Dileonardi, 1993: 557)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방임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많은 요인들 중 대표적인 것이 빈곤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모가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우, 모의 연령, 자녀수와 모 자신이 성장 과정에서 방임된 경우(Dore, 1993: 546; Kemp, 1998: 98) 등도 방임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상 언급된 요인들이 방임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이유는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자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인간의 기본 욕구인 정서적 지지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자녀를 보살피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도 결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녀를 모와 함께 돌보아줄 만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많다. 양육자의 교육 수준이 낮다는 것은 추상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여성의 경우 우울증 발병률이 남성에 비해 높는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모일 경우 그 위험도가 아주 높아서(Dore, 1993: 547) 우울증의 어머니일 경우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처벌적이거나 위축되고 신체적으로는 함께 있으나 심리적 유대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방임 가능성이 커진다. 또 모 자신이 성장 과정에서 방임을 경험한 경우 모는 자녀를 양육할 정서적 기술이 부족하며, 스스로의 경험 때문에 정상적인 가족 생활 기능과 활동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임 가능성과 연결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 역할 기술과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기 전에 모 자신의 초기 인생 경험에서 미해결된 정서적 욕구를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다(Dore & Harnett, 1995: 69).

2) 방임 차단 요인들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는 방임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언급된 요인들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방임하지 않도록 하려면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 자녀를 정서적·지적으로 지지해주려는 의도와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하며, 엄격하면서도 처벌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훈육하는 것, 필요할 때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욕, 활용가능한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지지망을 갖는 것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지지적인 성인을 갖는 것이 아동 방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아동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학습 능력이 있고 자존감이 높으며 공격성이나 충동성, 방어벽이 낮고 문제 해결력과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아동이 방임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는데(Kemp, 1998: 91) 이는 대부분 아동의 지적 능력을 높이고 긍정적 학교 경험 등을 통하여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특히 학교는 소속감을 창출하며 아동의 전 관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Rutter & Kemp, 1998: 91)는 점에서 이들 아동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요약해보면 저소득 모자가족 자녀의 방임 현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학교-복지관-가정 중심의 지역사회 지지망 구축으로 이들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막는 것과, 부모로 하여금 자녀 발달 상황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녀의 학교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이 학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교사나 친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보충서비스가 필요하다.

3) 프로그램 구성

방임에 대한 거입 프로그램 내용은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 언급된 사실들에 근거하여 첫째,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하여 지지적 성인 외 사회적 지지망 구축, 둘째, 학습 능력 향상과 소속감 형성을 위한 긍정적 학교 경험, 셋째, 모-자녀와의 관계 개선과 부모로서의 태도, 능력 형성을 위하여 가족관계를 공고히 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을 중요한 프로그램 요소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첫째 요인은 본 프로그램에서는 제한된 시간 요인에 의하여 적극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진행 과정에서 어머니와 워커와의 긴밀한 관계와,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 실시 등을 사회적 관심과 지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제한하였다. 따라서 둘째, 셋째 요인만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체계적인 일상생활 관리와 '가족 관계 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관리를 위하여서는, 현재 이들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도감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므로 워커의 철저한 감독과 어머니와의 연계를 통하여 아동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교 생활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소속감을 느

끼고 사회기술 혹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가족 관계 개선은 자신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킴으로써 모-자녀 관계가 상호지지적일 수 있도록 한다. 이상 프로그램들의 최종 목적은 방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동편의 요인으로 '자존감 향상'을 설정하였으며 이 때 자존감은 가족관계, 학교, 친구 관련 요인들이 중심이 된다. 이상의 사실들을 간략히 그림(〈그림 1〉 참조)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방임차단 요인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

3. 프로그램의 내용

1) 프로그램의 전체 방향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K지역의 2개 종합 사회 복지관에서 저소득 모자가족 아동 2개 집단을 대상으로 각 집단 당 2명의 워커가 주 2회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총 2회 개입하였다. 프로그램에 소요된 총 기간은 5개월 정도로 1999년 7월~9월까지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실제 프로그램은 10월~12월까지 진행되었다.

총 20회 중 1회에서 8회까지는 일상생활 관리 프로그램, 9회에서 20회까지는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었으며 전·후반 각각 1회씩 모두 2회의 문화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론적 언급에서 방임 예방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게 언급된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은 본 프로그램의 워커와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이들 아동에게 사회적 지지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9회에서 아동 상호간에 비상연락망을 구축한 부분 외 프로그램에서는 별도로 취급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사회적/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지지적인 성인과의 신뢰 관계 및 소속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방임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이 때 자녀를 방임할 수 있는 어머니 편의 요인도 차단시키기 위하여 어머니들에게는 과제를 주거나 수시 전화를 통한 간접 개입을 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머니 편에서는 방임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 보다 지지적인 부모 양육 스타일을 갖추도록 하였고 워커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자녀의 일상을 소상히 알고 관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껴안아주기 등 평소 자녀와의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일차적인 비중을 두어 자녀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고 아동이 늦은 시간에 혼자 있는 경우 워커들이 아동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식사 시간과 학교 과제를 챙기도록 하는 등의 전화 개입을 적극 활용하여 누군가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쏟고 있음을 인식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 편에서는 체계적인 생활 관리, 친구 및 교사 등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현재 자신의 감정 상태와 어머니에게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직접 전달하면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친밀감 경험을 통하여 의미있는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은 주 1회씩 본 연구자들의 철저한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졌고 중간 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였다.

2) 프로그램 진행 과정

실제 프로그램은 2개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나 같은 시기에 유사한 상황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였고, 연구자들의 지도 감독하에 주 1회씩 두 팀이 긴밀한 관계하에 함께 모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똑같이 거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1, 2회 프로그램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회에서는 먼저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자존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후에는 각자 서로 소개하도록 하였는데 같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의 안면은 있는 상태였으나 이름이나 보다 자세한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간단히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집단활동 시간에 지키고자 하는 사항들을 아동들끼리 정하고 종이에 적은 후에 각자 손도장을 찍음으로써 규정된 사항들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회기의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2회에서는 도화지 위에 자신의 현재 생활 일과표를 작성한 다음 서로 발표하고 현재의 일과표에서 자신이 바꾸고 싶은 것을 새로운 생활계획표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생활계획표를 작성하면서 아동들이 자신들의 현 생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활과 다른 친구들의 생활을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계획도 새롭게 다짐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동들은 자신의 일상 생활에 대한 애착은 물론 자신의 생활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맛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회기의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3, 4, 5, 6, 7, 8회 프로그램에서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하여 친구나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3회에서는 학교 생활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기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매일매일 학교에서 주어지는 과제물을 충실히 해 가는지, 학교에 준비해 가야하는 과제물들을 반드시 챙겨 가는지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오늘 하루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하여 쓴 다음 서로 발표하게 하였다. 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 아동의 장점을 높이 사줌으로써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싫어하는 과목을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하도록 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과목은 활동적인 과목이고 싫어하는 과목은 이론적이고 책이 두꺼운 과목인데, 지루하다고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숙제를 잘 해가느냐는 물음에 대하여서는 대부분 잘 해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숙제와 준비물 챙겨가기는 아동들하고만 이야기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므로 어머니들에게 이 사항들을 반드시 챙기도록 간단한 메모를 아동들 편에 보낸 다음 어머니들과 확인 전화를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회기의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1〉 프로그램진행과정

횟수	목 적	목 표	세 부 목 표	스 행 활 동
1	자존감 향상	일상생활 관리	규 칙 적 인 생활습관형성	· 자존감 검사 · 자기소개하기 · 규칙정하기(집단내에서의)
2				· 일과표 작성(자신의 현재 생활) · 생활계획표 작성(자신이 원하는 생활) · 만족도 검사
3			즐 거 운 학교생활	· 학교 준비물 및 과제 점검 ·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발표 · '나의 학교생활' 발표 · 만족도 검사
4				· 긍정적인 선생님상 발표 · 선생님께 편지쓰기 · 만족도 검사
5				· 비디오시청 및 느낌 발표 (친구관계, 학교생활에 관한) · '친구사귀는 법에 대한 생각 발표 · 만족도 검사

횟수	목적	목표	세부목표	수행활동
6		일상생활 관리	즐거운 학교생활	· 친구초청(프로그램 대상자 아닌) · 자신의 친구소개와 특징점 발표 · 집단놀이 및 다과 · 만족도 검사
7				· 박물관 견학(이대 자연사박물관) · 미니올림픽(장애체험 및 이인삼각경기)
8				· 야외학습 평가 · 다른 사람의 장단점 발견 및 발표 · 만족도 검사
9	자존감 향상		자신의 소중함 깨닫기	· 가족관계 검사 · ‘나의 이미지’ 표현 (애칭짓기, 나를 표현하기)
10				· 자기몸의 소중함 깨닫기(비디오시청 및 느낌발표)
11				· 나의 역사추적 (자신의 출생 및 성장과정을 어머님께 듣고)
12				· 야외학습(LG 사이언스홀)
13			· 존경하는 인물 소개 · 나의 특징점 찾기 · 나의 꿈 설계	
14			· ‘현재 가족의 모습’ 표현 및 발표 (가족의 하루일과를 그림으로 표현)	
15			· ‘우리 친인척 알기’ 그림으로 표현	
16			· 아빠에 대한 추억 나누기 · 아빠에게 편지쓰기	
17			· 엄마의 일상생활 그림 그리기 · 엄마와의 경험나누기 · “내가 엄마라면”	
18			· 가족신문만들기 (14회부터 사용한 집단활동 결과물 이용) · 자신의 가족 발표	
19	· 나의 인적자원 파악 · 집단내의 비상연락망 작성 · 가족관계 검사			
20	· 어머니 초청잔치 · 어머니와 함께 달력만들기 · 자존감검사			

4회에서는 학교 선생님과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선생님들과 친밀감을 조성하여 학교생활이 즐겁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나는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하고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한다. 다음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고 복지관 선생님, 캠프 때 만났던 선생님, 자원봉사자 선생님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학교 선생님은 무섭고 야단치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볼 때 아동들에게 학교 생활은 그리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만족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4번째 회기를 마쳤다.

5, 6, 7, 8회는 친구 관계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5회에서는 아동의 친구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한 친구를 여러 명의 다른 친구들이 도와줌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의 애니메이션과, 저학년과 고학년 사이에 벌어진 다툼을 상호 이해와 대화로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다음 자신의 친구들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몇 명 정도의 친한 친구가 있는지 누구와 왜 제일 친한지 등을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는 법에 대한 이야기로 프로그램이 연결되었다. 친구 사귀는 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30초 동안 들어주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해야만 할 경우 거절하는 법’,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경우 도움 구하는 법’ 등의 상황을 설정하여 아동들이 나와서 역할 시연을 하도록 함으로써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회기의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6회에서는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를 1명씩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들 아동들의 경우 다른 일반가족 아동들에 비해 생일날 집으로 친구를 초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참작하여 본 프로그램에 친구를 데리고 오으로써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자신이 데리고 온 친구를 다른 성원들에게 소개한 다음 친구의 모습을 그려 서로 느낌과 생각을 나누면서 친밀감을 더하도록 한 다음 함께 게임을 함으로써 마무리를 하였다. 친구를 소개할 때 데리고 온 친구의 이름과 특기, 장점, 이 친구를 데리고 온 이유를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옆에-, 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읽 수 있도록 하여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하여 서로 힘

을 합하는 경험을 하게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무엇보다도 아동들은 친구를 자신이 어딘가에 초대하여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기분이 고무되어 있었다. 만족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마쳤다.

7회는 박물관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야외 프로그램은 모자가족 아동들이 가족과 학교 밖의 경험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새로운 문화 경험을 통하여 자신감을 높일 뿐 아니라 야외활동을 통하여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를 새롭게 시도해 보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견학이 끝난 다음에는 ‘장애체험’, ‘이인삼각경기’ 등의 놀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어려운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8회에서는 지난 주의 야외학습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하였다. 아동들은 지난 회의 박물관 견학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평소 어머니와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한 아동들이 야외에 나갔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기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주 프로그램 이후 아동들 사이에 형성된 결속력을 바탕으로 의자를 가운데 놓고 다른 아동들은 둘러앉아 중간에 앉은 친구에 대한 장점과 고쳤으면 좋을 점들을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대단히 진지하고 솔직한 분위기였으며 서로 한 가족이라는 느낌들을 강하게 갖는 듯 하였다. 전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동질감이 조금씩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가 높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아동들은 이 프로그램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하여 자주 물음으로써 프로그램 종결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었다. 본 회기의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면서 본 회기를 종결하였다.

9회 이후부터 20회까지는 ‘가족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며 9, 10, 11, 12회에서는 자신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9회에서는 먼저 가족관계 검사를 실시한 다음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현재의 자신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이미지를 모자이크로 만들어보고 자신에게 적합하고 또 앞으로 원하는 모습에 어울리는 애칭을 지어봄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해나가도록 하였다. 기존에 자신에게 붙여져 있는 애칭들을 소개하면서 애칭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여부를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아직 애칭이 없거나 현재의 애칭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경우 친구들과 함께 자신에게 어울리는 긍정적이고도 미래지향적 애칭을 가짐으로써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원들은 자신이 만든 이미지카드를 등에 부치고 다른 성원들 앞에서 몸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다른 성원들의 다양한 표현과

동작을 함께 따라하는 등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분위기에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10회는 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신의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를 시청하였다. 비디오는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동화를 친근하게 읽어 주는 과정을 통하여 먼저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 남자와 여자의 차이, 사춘기 과정 등을 보여 주었다. 비디오를 보면서 아동들은 자신의 신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본인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사춘기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워커는 다양한 반응들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게 함으로써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하게 된 과정과 사춘기로의 변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워커가 마무리함으로써 아동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아동들이 자신의 처음 태어났을 때, 영아기 등 현재까지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3, 4장의 자기 사진을 준비해 오도록 하고 또 성장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어머니로부터 듣고 오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의 성장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머니와의 친밀감을 돈독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1회에서는 10회의 자기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였던 프로그램에 이어 자기 몸뿐 아니라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아동들의 현재 가정, 학교 상황으로 볼 때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아동들이 자신의 소중함과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과제로 주었던 자신의 어렸을 때 사진들과 어머니로부터 듣고 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재의 자신이 있기까지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들은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달아 친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2회는 7회에 이어 야외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번에는 LG사이언스홀을 견학하여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7회

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들은 다양하고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복적으로 삼았으며 친구들과의 결속력과 자신감도 높일 것이다.

13회는 ‘나의 꿈 설계하기’로 고학년은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저학년은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먼저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선정하고 그 인물이 살아온 과정과 그 인물을 존경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다. 또 자신의 장점을 바탕으로 나는 미래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고 그림으로 나타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하게 하였다. 특히 고학년에 비해 저학년에게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므로 너무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워커들이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아동들의 발표 사항들 중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어머니들에게 기록 혹은 전화로 알려 집에서도 아동의 장점과 특기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부모가 아동의 장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면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인식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자기 삶을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14에서 19회까지는 가족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14회부터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가지고 가족신문을 만들기 시작하여 매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금씩 완성해가면서 19회까지 가족신문이 완성되면 전체 앞에서 발표하기로 하였다. 14회는 ‘현재의 가족을 표현’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도화지에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원들을 그리고 가족의 하루 일과를 적었으며 준비해 온 사진들을 도화지에 부치고 이름, 나이, 생일, 생김새, 좋아하는 일과 음식,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게 하였다. 그 다음 자신이 적어놓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다른 성원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 중 즐거웠던 때와 앞으로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간단히 글로 적게 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기대를 마음속에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과 하고 싶은 일은 주로 가족이 함께 놀러 가는 것, 엄마와 함께 있는 것 등을 이야기하였다. 일부 아동들은 산만하기도 하였으나 가족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부분의 아동들이 몰두해 있었는데 가족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 시간에는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집안의 특성들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뿌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이들 가족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친족간의 소속감, 유대감을 경험하고 특히 아동이 자신의 가족이 소외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많은 식구들이 있다고 느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5회에서는 함께 살고 있지는 않으나 중요한 가족 관계를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모, 고모 등 사촌의 범주까지로 설정하고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워커가 제시한 틀을 근거로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 인물인지, 현재는 얼마나 자주 왕래하는지 등에 대하여 그림 혹은 글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아동들은 임대아파트로 입주하느라고 지리적으로 친척들과도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고, 모자가족의 어머니 역시 불우한 성장과정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원가족과의 관계도 친밀하거나 빈번하게 왕래가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따라서 아동들은 친척 관계도 대단히 소원한 상태로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

다음 시간에는 아동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물건과 아버지 사진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워커들은 아동의 어머니들과 전화 통화를 하여 아버지 물건이나 사진들을 가지고 오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 어머니가 아동들과 가능한 한 아동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전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자료들도 각자 가족 신문에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였다.

16회에서는 먼저 집에서 가져온 아버지 사진들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과 함께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종합하여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또 아버지에게 혹은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쓰도록 한 다음 자신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만들어놓은 우체통에 직접 편지를 집어넣어 부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사별한 가족의 아동들에 비해 이혼 가족의 아동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표출되지 못하였다. 한 아동이 전날 밤 아버지의 꿈을 꾸었다며 올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 이 때 워커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좋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동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전반적으로 아동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모호하고 막연하여 현실적으로 잘 정리되고 있지 못하였다.

17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작업을 바탕으로 엄마와 유대감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자신의 엄마의 일상을 마음으로 그려보도록 한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갈 때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어디에 계신지, 어머니의 퇴근 시간은 언제인지 등을 생각함으로써 어머니와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한다. 다음 엄마에 대한 자랑과 함께 엄마와 함께 했던 특히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려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한다. 다음에는 “내가 엄마라면 이라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엄마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표현하도록 하여 아동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거나 솔직히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어머니들에게는 외식 시간이나 놀이시간 등 아동과 함께 하는 시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프로그램에서 아동들이 어머니에 대하여 표현했던 부분들을 간단히 메모 하여 아동 편에 전달하였다. 14회부터 만들어져온 가족 신문에다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종결이 가까웠음을 알렸다.

18회는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름대로 정의된 자신의 가족 특성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 자신의 가족에 적합한 이름을 붙이도록 한다. 다음으로 14회부터 시작한 가족신문을 완성한 다음 다른 성원들 앞에서 자신의 가족 이름과 가족 신문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였다. 아동들은 가족 신문을 만드는 과정에 대단히 진지하였으며 다른 친구들 앞에서의 발표를 통하여 더욱 뿌듯함을 느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동들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애정과 소속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9회에서는 ‘아동 상호간 지지망’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가 직장 생활로 거의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가까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만일의 상황을 설정하여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지 생각나는 사람들을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한 결과 아동들은 어머니와도 이러한 이야기는 해 본적이 없어 긴급한 상황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집단 내의 상급학년이 보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아동들끼리 서로의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복지관 담당 선생님과 연락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동들이 서로간에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실질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여 아동들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9회 때 실시하였던 가족관계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20회는 어머니를 초청하여 지금까지 프로그램에서 자녀들이 표현해 놓은 그림이나 글, 신문들을 봄으로써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어머니와 함께 2000년 달력을 만들면서 새해 포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들은 대단히 만족해하였으며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자녀들의 모습을 발견하여 워커들에게 자세히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집에서 아동들의 행동이 크게 변화한 사실들에 대하여 워커들에게 깊이 감사하였다. 자녀들 편에서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함께 외출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는데 프로그램실에 어머니가 참석해 준 것에 대하여 대단히 자랑스러워하여 우쭐하기까지 하였다. 반면 어머니가 오지 않은 아동은 기운이 빠지고 시무룩해하는 것이 역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프로그램 참석률과 참여태도, 아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고루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였는데 아동들은 너무도 진지하였다. 공식적인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뒤 어머니들은 다른 방에서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아동들은 1회 때 실시했던 자존감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검사 후 아동, 어머니, 워커들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4. 연구방법

1) 자료수집과 분석

강서구에서 가장 열악하고 저소득 모자가족이 많은 B, D동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동사무소에서 협조받은 저소득 모자가족 연명부에 기재된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일이 전화 통화를 한 다음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전화와 가정방문을 통하여서도 직접 연결이 되지 않은 가족들은 메모를 남겨놓고 옴으로써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 이들 가족의 자녀를 방과 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족 중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프로그램 참석자로 선정하였다. 한 가족 당 평균 3회를 전화 혹은 가정방문을 통하여 접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대상

자 수는, B집단은 연명부 상의 12가족 12명 대상자 중 6가족 6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D집단은 24가족 27명 중 6가족 1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2개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모자 가정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1999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제 프로그램은 10~12월까지 2개 집단에서 각 집단 당 2명의 워커가 주 2회 개입하여 총 20회 실시하였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른 모자가족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비교집단,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자존감', '가족 관계'를 측정하였고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 만족도' 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자존감 척도는 Coppersmith(1967)가 아동을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총 5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구, 부모, 학교 그리고 개인적 관심사의 네 영역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을 측정한다. 질문 문항이 자신에 대한 것을 기술하는가에 따라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존감 척도는 연구자들이 번역하였으며 관계 전문가에 의하여 검증받았다. 점수의 범위는 0에서 5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반가정, 모자 가족 아동 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Cronbach's alpha를 검토한 결과 0.81로 나타나 사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족관계척도는 Hudson(1982)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최혜경(1997)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이다.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에 대한 문항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일반 가족 및 모자가족 아동 54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Cronbach's alpha를 살펴본 결과 0.82로 타당한 척도로 평가되었다.

또한 매 회기마다 아동에게 프로그램 참가 후 전혀 만족 못함(1점), 약간 만족 못함(2점), 그저그렇다(3점), 약간 만족함(4점), 대단히 만족함(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상생활 관리 프로그램 결과는 매 회기마다의 만족도 검사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3) 분석 방법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저소득 모자가족 가정 아동에게서 자존감 및 가족관계의 정도의 차이와 만족도 점수를 가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 아동의 수가 적으므로 비모수 통계 방법인 Paired Sample에 사용되는 Wilcoxon Signed Test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집단의 전후의 차이에 대한 양적 비교, 매 회기마다의 만족도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더불어 프로그램 참가 아동의 변화를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 결과

1) 집단 참가 아동의 일반적 특성

프로그램에는 모두 15명이 참가하였다. 그런데 1명은 사전평가에 참여했지만 사후 검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형제자매로 참여한 경우가 3쌍이어서 결과분석에서 3명이 제외되어 총 11명의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복지관에서 실시한 참가자간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같이 분석하였다.

2개의 복지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참가자 11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B복지관에서는 6명, D복지관에서는 5명이 분석대상이다. 어머니의 나이는 20대가 9.1% (1명), 30대가 58.3% (6명), 40대가 27.3% (3명), 그리고 50대가 9.1% (1명)였다. 이들이 편모가정이 된 사유는 72.7% (8명)가 남편의 사망이고, 이혼의 경우가 27.3% (3명)였다. 이들이 편모가 된지는 1년인 경우가 9.1% (1명), 4~7년이 63.7% (7명)였으며, 8년 이상인 경우도 27.3% (3명)였다.

이들의 41.7% (5명)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는 1명을 제외하고는 (10명) 어떤 방식으로든 취업하고 있었다.

같이 사는 가족수는 2~3명이 45.7% (8명)이며, 4~5명이 18.2% (2명), 6명이 9.1% (1명)였다. 이들은 72.7% (8명)가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이고 나머지 27.3% (3명)는 아니었다.

〈표 2〉 대상자 집단의 인적 특성

	성별	학 년	가족관계	모의 직업	요인 및 기간	양육형태
J	여	초등학교 3년	1녀	지하철 매점 피고용인	이혼 10년	편모 단독
P	여	초등학교 2년	1남 1녀	학원차량 운행	사별 8년	편모 단독 (조부모와 거의 단절)
H	여	초등학교 4년	1녀	무직(장애 2급)	이혼 10년	편모 단독
K	여	초등학교 3년	2녀	유치원 주방일	사별 9년	편모/남자친구
S	남	초등학교 4년	1남 2녀	생산직 근로자	이혼 9년	편모/남자친구
B	여	초등학교 4년	1녀	가내수공업	이혼 7년	편모/동거남
LS	여	초등학교 3년	2남 1녀	생산직 근로자	사별 5년	외할머니, 이모
LM	남	초등학교 2년	2남 1녀	생산직 근로자	사별 5년	외할머니, 이모
KY	여	초등학교 2년	1남 3녀	교회사역	사별 5년	편모 단독
PJ	남	초등학교 2년	2남	간호조무사	사별 1년	편모 단독
CHO	여	초등학교 4년	2녀	생산직 근로자	사별 3년	편모 단독

참가자 아동의 나이는 8~13세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8~9세가 27.3% (3명), 10세가 63.6% (7명)였으며 13세가 8.3% (1명)였다. 이들의 81.8% (9명)는 여자였고, 18.2% (3명)는 남자였다.

2)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11명의 프로그램 참가 아동을 대상으로 자존감의 사전, 사후검사의 측정결과는 〈표 1〉과 같다. 사전검사시 자존감은 평균 24.5(sd 11.0)에서 사후검사시 평균은 29.45(sd 4.76)로서 약간 변화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관계척도의 경우 사전검사시 평균 43.8(sd 7.68)에서 사후검사시 79.60(sd 7.85)으로 매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따라서 프로그램 종결후 참가 모자가족 아동의 가족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전반적인 자존감은 향상되지 않았다.

〈표 3〉 자존감척도 Wilcoxon Signed Rank Test(사전등위 - 사후등위)

	사례 수	평균등위	등위의 합
음수 등 위	7	5.57	39.00
양수 등 위	3	5.33	16.00
동점 등 위	1		
합 계	11		

통계치 $Z = -1.173$, $p = .241$ (2-tailed).

〈표 4〉 가족관계척도 Wilcoxon Signed Rank Test(사전등위 - 사후등위)

	사례 수	평균등위	등위의 합
음수 등 위	11	6.00	66.00
양수 등 위	0	0.00	0.00
동점 등 위	0		
합 계	11		

통계치 $Z = -2.934$, $p = .003$ (2-tailed).

반면 모자가족의 아동이지만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3명의 아동의 사전-사후간 자존감의 변화를 측정한 Wilcoxon Signed Rank Test의 Z값은 -1.604 ($p = .108$) 이고 가족관계변화의 Z값은 $-.535$ ($p = .593$)으로서 모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가 모자가족의 아동은 가족관계가 매우 향상되었음에 비해 프로그램 비참가 아동은 가족관계의 변화가 없으므로 프로그램의 참여가 프로그램 참가 아동의 가족관계 향상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로서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단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회에서 8회(7회 야외학습 제외)까지의 일상생활 관리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은 평균 4.95로 거의 5점 만점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임으로써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5〉 일상생활 관리 프로그램(1~8회) 만족도 검사

회기	1	2	3	4	5	6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평균
점수	5	5	5	4.7	5	5	5	4.7	4.9	5	4.7	5	5	4.7	5	5	4.9	4.8

3) 아동의 변화에 대한 질적 분석

〈p〉

P는 프로그램 참석 아동들 중에서 가장 방치된 상태에 있으며, 거의 집에 있지 않고 밤10시까지도 집밖을 돌아다닌다.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 형성이 되어있지 않으며 전반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다른 아동들에 비하여 참석률이 저조한 만큼 일상생활을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장점을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후 자신감과 본 프로그램에 대한 친밀감을 조금씩 느끼는 듯 하였고 이에 따라 출석률도 약간씩 상승되었다.

〈B〉

B는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다.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집밖을 걸돌고 있다. 일상생활에의 적응이 피상적이며, 학교생활 역시 걸돌고 있다. 또 어머니에 대하여 무시하는 말을 하는 등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위계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 어머니는 한글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대단히 무지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사춘기에 이른 딸을 적절히 보호 양육할 의욕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 있다.

〈J〉

어머니가 아침부터 밤 10~11시까지 가게에 나가시는 상황이어서 거의 생활에 규제가 없어 산만한 편이다. 방과 후 시간을 숙제도 하지 않은 채 거의 낮잠을 잠으로써 보낸다. 자신의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하고 용돈을 마구 쓰고 학교과제를 잘 잊어버린

다. 부적절한 어머니와의 위계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크게 수정되었고 어머니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아동이다.

〈H〉

전형적인 부모화된 아동으로 자신의 환경을 잘 정리하고 다른 또래 아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가르치려 하는 등 지배적이다. 공격적이며 말투가 거칠고 욕설도 사용한다. 장애인인 어머니는 초기에는 장애인 모임 일을 하느라고 거의 매일 늦게 귀가하였으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귀가가 조금씩 빨라지면서 H와의 대화 시간도 많아지고 어머니도 지지를 얻어 어머니와 H의 관계가 상당히 호전되었다.

〈P〉

자기 표현에 서투르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고집을 많이 부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 다른 성원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오빠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 다른 아동들과의 다툼이 반복되어오다가 중반기 이후에 오면서부터 조금씩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물건을 나누어 쓰는 등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K〉

2명의 언니와 어머니에 의하여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M은 매사에 자신을 다른 아동들과 지나치게 비교하는 등 열등의식과 질투심이 많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고민이 많고 이성에 대한 동경도 강하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어머니의 암 수술로 K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본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의 신뢰와 아동의 적극성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였다.

〈LM〉

외할머니와 어린이 집 교사인 이모에 의하여 일상생활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큰 이모의 결혼을 앞두고 외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 이모가 하던 양육 역할을 맡게 되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수줍음을 많이 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말을 하더라도 말끝을 흐리는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말도 많아지

고 발표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집단 안에서 성원들과 잘 어울리고 집단활동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였다. 집단이 끝나는 것을 많이 아쉬워하였고 친한 친구가 생겨 더욱 계속해서 본 모임이 지속되기를 절실하게 원했다.

초기에는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싫어했다. 어머니를 뒷모습만 그리거나 아주 작게 그려 어머니의 존재가 자신에게 아주 미미함을 보여주다가 점차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가 깔끔하고 칭찬 받는 가족 등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LS〉

할머니의 양육으로 비교적 다른 아동들에 비하여서는 안정감이 있으나, 방과 후의 생활은 TV 보는 데에 거의 시간을 보내었다. 예쁜 얼굴로 주변의 관심을 샀으며 본인도 자신의 청결과 외모에 관심을 기울였다. 비교적 예의 바르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밝히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토라져 버리는 등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였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자신만을 생각하던 모습에서 다른 성원들을 배려해 줌으로써 친구 관계가 부분적으로 원활해짐을 보여주었다.

〈PJ〉

일상 생활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못하였다. 아직 한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 있고 학교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학교 생활이 원만치 못한 상태에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쓰기 등보다는 특히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되어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남편의 사별로부터 아직 회복되지 못한 어머니도 후반으로 갈수록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등 자녀들과의 관계도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JS〉

어머니의 빠른 출근과 늦은 귀가로 인하여 방과 후 거의 방치되고 있어 TV보는 시간과 용돈 관리가 안 되고 있었으며 비만한 체격으로 인하여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을 계획하는 데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균것질

이 줄어들어 등 용돈 관리에 변화를 보였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특히 머리로 얼굴을 받 이상을 가지고 다니고 모든 질문에 “몰라요”라는 답으로 일관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나 점차 워커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 동시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머리로 깔끔하게 빗어 넘기는 등 외모에 큰 변화를 보였고 학교 생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던 초기와 달리 학교 과제를 차실히 해 가는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하여 협동심도 크게 향상되었다. 어머니가 자주 늦게 들어오므로 배가 고플 적이 많아 간식에 대해 관심이 많다.

〈KY〉

나이에 비하여 동생을 돌보는 등 과중하게 집안 일을 맡고 있다. 워커의 관심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어머니는 신앙생활에 시간을 주로 할어함으로써 자녀들은 방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타난 KY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자부심이 있고 긍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으로 표현되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신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어두웠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보다 편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6. 결론 및 제언

부모의 지도감독하에 생활하여야 할 성장기 아동들이 어떤 연유로든 부모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영향은 심각하다. 특히 빈곤과, 빈곤으로 인한 열악한 상황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들 아동들이 방임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점을 문제로 인식하여 시작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모자가족 아동들의 방임 가능성을 차단 혹은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달 반정도 기간에 걸쳐 아동 방임 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으로는 ‘자존감 향상’, 하위 목표로는 ‘일상생활 관리’와 ‘가족관계 개선’으로 설정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는데 가족관계 개선에서는 크게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만족도 검사를 통한 ‘일상생활 관리’에서도 효과성이 크게 입증되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인 자존감 향상에서 긍정적 변화는 이루어졌으나 프로그램 실시를 전후로 한 변화가 유의미하게 해석되지

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관계 외 아동의 자존감 부분과 관계되는 빈곤 상황이나 학교와 친구 관계 등 외부체계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아동들에 대한 개입이 가족 내적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는 특히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중요한 초점으로 삼았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녀를 방임하는 주체는 제일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 제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에 대하여 적극 개입한 것이 어머니들을 사회적,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또 자녀발달에 대한 이해와 자녀 지도 방법에 대한 간접적인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녀를 방임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차단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방임 개입 프로그램에는 어머니가 가진 요인으로 인한 방임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작업이 아동이 가진 요인으로 인한 방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자존감은 부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들 가족이 처하여 있는 외부체계, 즉 심각한 빈곤 상황 외 학교나 친구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프로그램에서는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에까지 포괄적 개입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생태학적 개입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빈곤가족의 경우 외부체계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무력감을 느껴왔을 것이고 그러한 경험이 그들의 자존감을 크게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본 프로그램 참석 아동들의 경우 이혼가족의 경우가 사별가족에 비해 모자가족으로 된 기간이 길고, 일반적으로 사별의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이혼가족 아동들의 자존감이 사별가족 아동들의 자존감에 비해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부분이 적었다는 점은 수긍할 만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저소득 모자가족 아동을 방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직접 관련된 부분과 프로그램 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프로그램 내용 관련하여 제언할 사항으로는

첫째, 본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같은 집단으로 하여 프로그

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저학년과 고학년은 인지능력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차이가 많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고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주제가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고 반드시 어머니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아동 개인의 사적 세계를 존중하여 자율성을 키워 주는 부분이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들 가족 상황 속에서 성장기 아동들 특히 사춘기 자녀들은 성과 결혼에 대한 잘못된 고 혼동된 인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저학년 아동들은 현재 내왕하는 어머니의 남자 친구를 아버지로 부르면서 원래의 아버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고학년 아동들은 도덕적 가치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원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죽음이나 이혼 사실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의 올바른 이성관, 결혼관을 다루는 내용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들 아동은 공격성이 다소 심하고 전반적으로 행동이 산만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 아동들에게 서로 타협하는 법, 의사결정 방법 등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 방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요 불가결하다. 이들 어머니들은 어머니 자신이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으며 자신의 원 가족과의 유대가 소원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절한 모델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부모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외적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짧은 기간 그리고 적은 표본을 통해서나마 프로그램 실시 결과 드러난 사실로 볼 때 이들 가족에 대한 개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당수의 아동들을 방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아직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명의 의미 있는 성인만 주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아동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아동을 방임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사회적으로 편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충분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정서적 지지가 없을 경우, 부모 역시 자녀를 지지적으로 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상당수 편모에게 법적 남편은 아니지만 사실혼 형태 혹은

불규칙하면서도 모호한 이성 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들 남성의 대다수는 기혼자로서 자신의 가정을 지닌 상태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편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얻어 가는 편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편모가 남성과 불안정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 아닌 다른 요인들이 그들 관계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른 요인들이란 성적 욕구, 정서적 욕구 등 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동시에 편모들에 대한 지지프로그램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아동 방임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들 가족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고 외부 체계 특히 아동의 학교 체계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아동 방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학교 등 가족 외부체계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태학적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와 같이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아동들은 방과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끼리 어른이 없는 집에서 비교육적 비디오를 보는 등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생활 속에서 폐쇄집단화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사회 규범은 알지 못한 채 특수 집단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가족들의 삶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어진 변화를 프로그램 종결 이후에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계적인 다른 사회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양육 기능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아동들끼리 그룹 홈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모의 경제활동으로 지속적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큰 아동들의 경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아동과 가족의 생활을 지도 관리할 수 있게 하여 변화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여섯째, 어머니들은 아동이 가진 발달 욕구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였다. 이들 어머니들의 최대 관심은 자녀의 학습 결과만이거나 그마저도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자녀 관계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자녀 방치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방임되고 있는 이들 가족 아동들에 대하여 학교나 사회가 아직 적극적

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당장은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한 때문이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 실시 결과 고학년의 경우 이미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감독 없이 수년간 방치된 상태로 있어온 상태여서 규율을 수용하는 사회적 태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 자기 중심적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곧바로 미래의 청소년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은 앞으로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11명의 저소득 모자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므로 모든 저소득 모자가족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빈곤의 여성화'라는 세계적 현상과 더불어 저소득 모자가족의 자녀 방임 문제는 심각하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청소년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모자가족 아동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보호 장치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은 수이긴 하지만 저소득 모자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 아동 방임 예방 혹은 개입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성혜·한유진. 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연구》, 제 20호, pp. 60~73.
- 김순옥. 1992. "가족불안정성에 관한 대책,"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서울특별시: 한국가족학연구회, pp. 107~136.
- 김정자. 1984. 《편부모가족의 지원 방안에 관한 기술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희·김갑숙·최외선. 1995. "편모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3권, 제 2호(통권 제 102호):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 송성자. 1982. "빈곤모자를 위한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사회복지》, 제 74호, pp. 83~114.

- 신화용·조병은. 1996. “편부모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 심리적 적응,” 《늘어나는 편부모 가정》, 서울특별시 : 한국가족관계학회, pp. 5~32.
- 정현숙. 1992. “가족해체와 자녀문제,”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서울특별시 : 한국가족학연구회, pp. 77~106.
- 정현숙·서동인. 1996. “편부모가정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 심리적 적응,”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서울특별시 : 한국가족관계학회, pp. 33~64.
- 조희선. 1996. “편부모 가정복지의 실제와 향상 방안,” 《늘어나는 편부모 가족》, 서울특별시 : 한국가족관계학회, pp. 65~116.
- 최해경. 1997. “사회적 지지망 구조가 편부모 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통권 33호, pp. 377~395.
- 황성철·최선화. 1997.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질 측정과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통권 31호.
- Alan Kemp. 1998. *Abuse in the Family*,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Diane Depanfilis. 2000. “How Do I Assess a Caregiver’s Motivation and Readiness to Change?” *Handbook for Child Protection Practice*, edited by Howard Dubowitz & Diane Depanfilis: Sage Publications, Inc. pp. 324~328.
- _____. “How Do I Determine If a Child is Neglected?” pp. 121~126.
- Hanson, Shirley M.H. 1986. “Healthy single parent families.” *Family Relations*, Vol. 35, pp. 125~132.
- Howard, Tina U. and Frank C. Johnson. 1985. “An ecological Approach to Practice with single-parent families,” *Social Casework*, pp. 483~489.
- Joan W. DiLeonardi. 1993. “Families in Poverty and Chronic Neglect of children,” *Families in Society*, Vol. 74, pp. 557~562.
- Jung, Marshall. 1996. “Family-centered practice with single-parent familie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pp. 583~590.
- Kissman, Kris. 1991. “Feminist-based social work with single-parent familie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pp. 23~28.
- Martha Morrison Dore. 1993. “Family Preservation and Poor Families: When ‘Homebuilding’ Is Not Enough.” *Families in Society*, Vol. 74, pp. 545~556.
- Martha Morrison Dore, & Joan M. Harnett. 1995. “The Role of the Volunteer in Family-Preservation Services,” *Families in Society*, Vol. 76, pp. 67~75.
- Mendes, Helen A. 1987. “Single-Parent Families: A Typology of Life-Styles.” *Social Work* Vol. 24, pp. 193~200.

- Richards, Leslie N. and Cynthia J. Schmiede. 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Family Relations*, pp. 283~284.
- Weltner, John S. 1982. "A structural approach to the single-parent family," *Family process*, Vol. 21, pp. 203~210.

Intervention Program on the Child Neglect of Low-income Female-headed Families

Park, Young-Hee · Shin, Hye-Seop

One of the difficulties of female-headed families face is economic hardship. Low-income single mothers work long hours, become isolated and feel burdened for dual roles. And many of them don't have relatives to share parenting roles. As a result, children of low-income female-headed families are easy to be neglected and left to form a delinquency-prone group in neighborhood.

Traditionally, it has been viewed that children in female-headed families have problems due to the loss of father role. However, study indicates that these children can adjust well i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s consistent and adequate.

An Intervention program for low-income female-headed elementary children was developed and delivered in two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s.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raise self-esteem. Two goals were 1) management of daily living habits and 2) improvement of family relations. Social workers maintained contact with mothers to talk about children's behaviors and to prompt hugging and touching. In addition, workers helped children to form good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school teachers.

Children were satisfied with the program. Their family relations were improv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ter the program (wilcoxon signed rank test $z=-2.934$ $p<.05$). However, their self esteem were not improved significantly (wilcoxon signed test $z=-1.173$ $p>.05$). Qualitative analysis of each children were also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s: Intervention programs need to be delivered separately for low-grade and high grade elementary children because they have different developmental needs. The program also need to include education on sex and marriage as well as aggression reduction. Society needs to provide more support to single mothers for their personal and parenting needs.